



세비아, 유로파 3연패 세비아(스페인)가 19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벌어진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을 3-1로 꺾고 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세비아 선수들이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바젤(스위스) AP 뉴스

호남 더비 승자는? 전북 68% vs 전남 12%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 중간 집계

전남, 최근 4차례 맞대결 2승1무1패
J리그 가시와, 후쿠오카전 승리 81%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 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1일과 22일 펼쳐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6경기와 일본프로축구 J리그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 게임을 발행한다. 이번 회차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바탕으로 주요 경기의 분석 포인트와 이슈를 살펴본다.

●‘호남 더비’, 전북이 전남 잡고 선두 서을 추격한다!

먼저 K리그 클래식에선 전남 드래곤즈와 전북현대가 맞붙는 ‘호남 더비’가 눈길을 끈다. 전체 참가자의 67.58%는 원정팀 전북을 지지했다.

전북은 올 시즌 우승 후보 1순위의 강팀이다. FC서울의 강력한 기세에 밀려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언제든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전북은 5승4무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다. 단, 원정

(1승3무)에선 홈(4승1무)에 비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주의할 만한 분석 포인트다. 전남은 올 시즌 10경기를 치러 고작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당 1골도 넣지 못하는 빈약한 공격력(평균 0.9득점)이 문제다. 객관적 전력에선 도저히 전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선 오히려 전남이 전북에 2승1무1패로 앞서있다. 더비의 특성상, 전력의 요소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뒀야 한다.

이밖에 수원삼성과 포항 스틸러스는 안방에서 각각 울산현대와 수원FC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상대하는 수원의 지지율은 65.14%였다. 반면 울산 승리 예상은 11.54%에 그쳤다. 포항은 66.74%를 얻어 12.32%의 수원FC를 가볍게 누를 것으로 예측됐다.

●J리그, 가시와&가와사키가 최다득표

J리그에선 상위권의 가시와와 가와사키가 나란히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먼저 J리그 팀들 가운데 가장 높은 80.87%를 얻은 가시와는 안방에서 승격팀 후쿠오카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번호	경기일시	원정	홈팀 승	무승부	홈팀 패
1	5/21(토) 14:00	주빌로리와타 : 반도레고후	51.80%	32.83%	15.37%
2	5/21(토) 14:00	상주상무 : 성남FC	21.00%	35.12%	43.88%
3	5/21(토) 14:00	수원삼성블루윙즈 : 울산현대	65.14%	23.32%	11.54%
4	5/21(토) 15:00	가시와레이슬 : 아비스파후쿠오카	80.87%	11.58%	7.55%
5	5/21(토) 15:00	사간토스 : 오미야아라디자	19.94%	30.52%	49.54%
6	5/21(토) 15:00	전남드래곤즈 : 전북현대모터스	12.49%	19.93%	67.58%
7	5/21(토) 16:00	비셀고베 : 요코하마F마리노스	50.78%	30.18%	19.03%
8	5/21(토) 16:00	산프레체히로시마 : 감바오사카	53.45%	27.03%	19.52%
9	5/21(토) 18:00	쇼난벨마레 : 베갈타센다이	27.00%	43.26%	29.74%
10	5/21(토) 18:30	나고야그램퍼스 : 가시마엔틀러스	16.50%	24.06%	59.43%
11	5/21(토) 19:00	알비렉스니가타 : 가와사키프로탈레	11.49%	13.07%	74.81%
12	5/22(일) 14:00	포항스틸러스 : 수원FC	66.74%	20.93%	12.32%
13	5/22(일) 14:00	대구FC : 강원FC	49.89%	29.51%	20.60%
14	5/22(일) 16:00	인천유나이티드 : 광주FC	32.61%	36.15%	31.24%

가와와는 5승4무3패로 5위에 올라있다. 특히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가장 최근의 컵대회까지 포함해 그동안 모두 5차례 맞붙어 4승1무의 압도적 성적을 거뒀다. 단, 3월 23일 벌어진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선 2-2로 비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듯하다. 또 가시와는 5연승 후 1무1패로 주춤하고 있는 반면 후쿠오카는 쇼난전 승리로 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객관적 전력에선 가시와가 크게 앞서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선두 가와사키 역시 원정임에도 74.81%의 몰표를 받았다. 가와사키는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무려 26골을 터트렸다. 이번 상대인 니가타를 맞아 서도 4월 6일 컵대회 경기에서 5-0의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더욱이 니가타가 아직 안방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와사키는 원정에서 5전승을 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와사키 승리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경기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는 21일 오후 1시50분 발매 마감된다.

야구토토 스페셜 29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19일 오전 8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LG vs 넥센		롯데 vs 두산		NC vs 삼성	
경기일시	5.20(금) 18:30		5.20(금) 18:30		5.20(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6~7)-(4~5)	6.00%	(6~7)-(2~3)	5.72%	(6~7)-(4~5)	6.09%
2	(4~5)-(6~7)	4.77%	(6~7)-(4~5)	5.51%	(2~3)-(4~5)	5.87%
3	(8~9)-(2~3)	4.40%	(4~5)-(6~7)	5.46%	(4~5)-(6~7)	5.87%
홈팀 승	44.97%		40.06%		42.62%	
같은 점수대	12.09%		14.89%		12.54%	
홈팀 패	42.94%		45.06%		44.83%	

* 게임방식 : 3경기 6게임(또는 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5. 5. 20(금) 18:20

“두산, 롯데 잡는다” 45%

야구토토 스페셜 29회차 중간 집계
LG 6~7점-넥센 4~5점 예상 최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 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0일 벌어지는 2016시즌 한국프로야구(KBO)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29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롯데-두산(2경기)전에선 양 팀의 투표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 접전이 예상됐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홈팀 롯데는 40.06%를 획득했고, 원정팀 두산은 그보다 약간 높은 45.06%를 얻었다. 나머지 14.89%는 양 팀의 같은 점수대를 내다봤다. 최종 점수대에선 롯데 6~

7점-두산 2~3점 예상(5.72%)이 가장 높았다.

LG-넥센(1경기)전에서도 LG(44.97%)와 넥센(42.94%)의 투표율이 별 차이 없이 나타났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12.09%)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에선 LG 6~7점-넥센 4~5점 예상(6.00%)이 1순위를 차지했다.

NC-삼성(3경기)전 역시 NC(42.62%)와 삼성(44.83%)의 투표율이 대동소이했고, 양 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2.54%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에선 NC 6~7점-삼성 4~5점 예상(6.09%)이 최대였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29회차는 20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벳코치를 응원하라’ 이벤트 호응

승부 예측 신규 종목 추가 기념
열흘 만에 7000건 조회수 기록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벳맨(www.betman.co.kr)이 승부 예측 서비스 ‘벳코치’의 신규 종목 추가를 기념해 진행 중인 ‘벳코치를 응원하라’ 이벤트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벤트를 시작 한지 열흘 만에 7000건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스포츠팬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축구에 이어 야구, 농구, 배구로 분석 영역을 확대한 벳코치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정배당률게임 프로토 및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 결과를 추천해주는 승부 예측 콘텐츠다. 또 이용자가 각 경기의 시즌 승률을 비롯해 홈 승률, 득·실점 등 각종 승패 요인에 직접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분석 노하우를 동원하면 적중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2종류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벤트

에는 ‘벳코치 응원글 퍼뜨리기’와 ‘벳코치를 응원하라!’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벳코치 응원글 퍼뜨리기’의 경우 벳코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SNS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나 스포츠 관련 기사 등의 댓글로 게재한 뒤 해당 페이지의 URL 주소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61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 전동드릴(5명), 블루투스 스피커(5명), 기프트콘(1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승부 예측과 분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벳맨의 벳코치가 토트팬들은 물론 스포츠 마니아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벳코치가 스포츠 관전과 스포츠토토의 재미를 한층 더 올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6월 13일 벳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벳맨 이벤트 페이지(<http://www.betman.co.kr/event.s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태 “내가 간다, 리우”

“후배들 추격…올림픽 양보 못해”
SK텔레콤오픈 1R 1언더파 시동

“후배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 나도 잘 하고 있다.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쟁할 것이다.”

시즌 초반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있는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에선 올해 세 가지 큰 목표가 있다. 2년 연속 상금왕과 PGA 투어 진출 그리고 리우올림픽이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은 김경태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고 있다.

김경태는 2006도하아시안게임에서 골프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영광이 어떤 기쁨인지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올림픽은 더욱 특별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출전은 무난해 보였다. 안병훈(세계랭킹 24위)에 이어 세계랭킹 45위로 쉽게 출전권을 따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4월 이후 후배들의 추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수민(69위)에 이어 왕정훈(70위)이 유러피언투어에서 맹활약하면서 김경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오션코스에서 열린 2016 SK텔레콤오픈 1라운드 13번홀에서 김경태가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태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하지만 김경태는 여유와 함께 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태는 “프로골퍼로 ‘마스터스와 올림픽 우승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마스터스 우승이다. 그러나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고, 112년 만에 열리는 만큼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된 일이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배들이 잘 하고 있는 만큼 나 역시 잘 하고 있다. 쫓기고 있다고 해서 긴장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유지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꼭 나

가보고 싶다”라고 힘줘 말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올림픽 경쟁자로 떠오른 왕정훈(22)에 대해선 “어린 나이에 유럽투어에서 2승을 했다. 더 큰 투어에 가더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TV를 통해 모리셔스오픈 중계를 봤는데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로서의 도전도 계속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5승을 거두며 2010년 이후 5년 만에 상금왕이 됐다. 그리고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2년 연속 상금왕을 향해 순항 중이다.

4년 전 놓친 PGA 진출의 꿈도 다시

꾸고 있다. 김경태는 다음주까지 60위 이내의 순위를 유지하면 US오픈에 출전할 수 있다. 지난해 상금왕 자격으로 브리티시오픈 출전권까지 확보해뒀고, PGA 챔피언십과 WGC 시리즈 출전 가능성도 높다.

김경태는 “조금만 더 잘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지만 빨리 치료해 몸을 추스르고, 6월부터 이어지는 큰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자신감은 넘쳤다. 김경태는 “지금이 골프선수로서 최고의 시기인 것 같다. 실력과 실력이지만 신체적 변화도 크게 없을 시기이고 가정도 생기면서 새로운 책임감과 즐거운 일들이 많아졌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정도는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경태는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SK텔레콤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했다. 1라운드 1언더파 71타로 경기를 마쳤다.

영종도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매치플레이션 왜 이번이 자주 나올까

두산매치플레이 첫날부터 이번 속출
일대일 심리전·맞춤형 전략 등 영향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6억원) 첫날부터 이번이 속출했다. 벳맨 홀란(30·삼천리·사진)이 강력한 우승후보 이정민(24·비씨카드)에게 6홀 차 대승을 거뒀다.

홀란은 19일 강원도 춘천 라테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64강전에서 이정민을 일방적으로 몰아친 끝에 5홀 남기고 6홀(6&5) 승리를 따냈다. 이처럼 매치플레이에서는 이번이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3~4라운드를 경기해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매치플레이는 일대일의 게임 방식으로 펼쳐진다. 물론 실력이 월등한 선수라면 일방적으로 승리를 쟁길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이 엇비슷한 프로들의 경기에선 그렇지 않다. 절대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

경기가 전개되는 속도도 승부에 영향을 준다. 이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경기 특성상 때때로 흥분과 좌절이 반복된다. 흥분과 좌절이 반복된다. 흥분과 좌절이 반복된다.



홀에 집어넣은 것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서 상대의 흐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상대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다. 홀란이 이정민을 상대로 대승을 날릴 수 있었던 건 노련한 경기 운영 덕이다. 홀란은 전반부터 이정민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상대가 강한 만큼 더 강하게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이정민이 오히려 경기의 리듬을 빼앗겼다. 홀란은 전반 9홀에서만 6up으로 앞서나갔고, 승기를 잡은 후반에는 집착한 경기운영으로 전략을 바꿨다. 13번째 홀에서 이정민을 무너뜨렸다. 이번 대회 최대의 이번이다.

배짱과 끈기있는 승부근성은 필수다. 고진영은 경기 내내 꺾보미와 시소게임을 펼쳤다. 그러나 막판 실수를 이끌어내면서 연장 끝에 승리를 따냈다. 막판 뒤집기 역시 매치플레이의 묘미다.

주영로 기자